

美 개인, 세계최초 MPU發明 주장

美國特許商標廳이 최근 無名의 發明家에게 MPU(마이크로프로세서)의 주요 特許를 내줬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美 반도체업체가 소송돌이에 싸여있다. 이 소문의 장본인은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길버트 하이어트씨(52)로 그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發明했다고 주장, 70년에 特許를 美特許廳에 제출했다는 것.

현재 일반적으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發明者는 前 인텔社의 사장인 테드 호프씨로 알려지고 있으며 인텔社는 71년에 마이크로프로세서를 商品化했다.

이에대해 하이어트씨는 68년에 그의 거실에서 이의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히고 있어 그의 特許가 인정되면 인텔 및 모토로라社 등 美國의 대형반도체업체는 수억달러에 달하는 特許사용료를 지불해야 된다.

한편 하이어트씨가 特許權을 갖게될 경우 인텔社 등은 自社의 침해조권 및 特許를 지키기 위해 법정투쟁을 불사할 조짐이어서 일대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.

美 IBM 汎用컴퓨터 18機種 개발

美國 IBM社는 90년대 컴퓨터 기술을 선도할 새 컴퓨터

구조(Architecture)인 시스템 1390과 이를 바탕으로한 범용 컴퓨터 신제품을 개발했다.

IBM社는 뉴욕주의 퍼킵시 공장에서 5일(현지시간) 새로 개발한 범용컴퓨터 ES/9000 시리즈 18개 기종에 관한 발표회를 가졌다.

이날 신제품 발표회에서 조지 콘레이디스 수석부사장(마케팅담당)은 『이번에 선보인 신제품중 중앙처리장치(CPU)를 6개 사용한 최상위기종인 「ES/9000 모델 900」은 가장 성능이 낮은 「모델120」보다 1백배의 성능을 낼 수 있으며 기존의 최고성능제품인 3090 모델 600J보다 1.9배나 성능이 뛰어나다』고 설명했다. 시스템 1390은 첨단 컴퓨터 구조와 기술 및 기능을 통합시킴으로써 컴퓨터의 성능뿐만아니라 접속성 확장성 보안기능 활용도 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.

콘레이디스 수석부사장은 『ES/9000에 채용된 신기술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고속 직렬光채널』이라며 컴퓨터 본체와 프린터 등의 주변장치 또는 컴퓨터본체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배선을 고속직렬光 케이블로 사용하는 ESCON(Enterprise System Connection) 구조를 자체개발, 채택함으로써 정보교환속도 및 접속거리를 크게 향상시켰다고 밝혔다. ESCON을 이용하면 9km 떨어진 곳에서도 컴퓨터 및 주변기기 사이에 10Mbps

의 속도로 정보교환이 가능하다.

ES/9000은 하나의 CPU에서 여러가지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논리구획 기능을 갖춰 경제성과 활용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. 또 컴퓨터의 가동 중단을 크게 줄였으며 보안기능이 크게 향상돼 대량의 정보를 고속으로 주고받는 네트워크, 데이터베이스(DB)관리, 온라인 업무 분야에 적합하다.

日 후지쓰 超大型컴퓨터 개발

초당 3억개의 명령어처리 능력(3백MIPS)을 갖춘 세계 최고성능의 초대형범용 컴퓨터가 日本에서 개발됐다.

4일 韓國 후지쓰는 日本 후지쓰(富士通)가 초대형컴퓨터 신제품 「M-1800 모델그룹」 5개 기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.

후지쓰는 이 제품가운데 최상위기종인 M-1800/85는 범용컴퓨터에서 세계 최초로 8개의 중앙처리장치(CPU)를 채용, 최고 3백10MIPS의 성능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.

이는 이회사 기존 컴퓨터가운데 가장 성능이 뛰어난 M-780/40보다 3배가량 향상된 것이며 기억용량도 주기억이 2기가바이트(GB), 시스템기억이 8GB로 M-780보다 4배 많다.

한편 후지쓰는 메인프레임에서 쓸 유닉스 OS(운영체제)인 UXP/M도 함께 공급한다.♣